

# 政治家 환경인

## 김상현(金相賢)선생(1)

글/사진 : 박 창 근  
(분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1. 40여 년을 이어 온 숙명적(宿命的) 인연

‘50년대 말, 군(軍)에서 팔 하나를 잃고, 사회로 돌아온 필자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종로 5가에 ‘바오로 서림’이라는 외서점(外書店)을 냈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무너지려는 마음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어서, 필자는 책방에서 장사하기보다는 다른 책방의 주인들과 어울려 놀기가 일쑤였다.

그날도 옆 책방, 골방에서 인근의 책방 주인들이 모여 점심내기 화투를 치고 있는데, 웬 사람 하나가 불쑥 들어서며,

“이 사람들 대낮에 장사는 안하고, 노름만 하고 있으면, 큰 일 날 사람들이네”하며, 판의 돈은 물론, 사람들 각자 앞에 놓여 있는 돈도 거두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내 앞에 놓아 둔 돈도 예외가 아니었다. 돈을 모두 거둔 그 사람은, “오늘은 돈만 압수하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다음엔 모두 구속 할 테 니, 노름하지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하쇼…”하곤, 뒤도 안돌아 보고 나가는 것이었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에게 줄 지에 당한 일이라, 어이가 없어 주위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당한 듯, 유쾌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있던 ‘윤형두’ (당시는 ‘삼우당’이라는 서점을 경영했다) 현, ‘범우사’ 회장이 말했다.

“아, ‘바오로(필자의 가톨릭 본명)’ 는 아직 ‘김상현’ 이 하고 인사 안했지? 우리(서점가의 몇몇 사장들)가 밀고 있는 친구인데,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친구라네……”

이것이 ‘김상현’ 의원과의 첫 만남이었다. 당시 ‘김상현’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치(국회의원) 지망생으로, ‘윤형두’ 씨와는 친한 사이로 가끔 찾아와, 친해진 인근 책방 사장 들을 털기도 한, 말하자면 방랑객 시절이었다.



全國環境管理人聯合會

\*사진설명:  
본 월간지 1989년 6월 표지에 모셨던,  
당시 환경보호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김상현 선생님!

그리고 당시의 정치지망생들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웅변을 배우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씨가 부원장으로 있던 웅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김상현' 씨와 친분을 맺게 되고, 예의 화투판 휩쓸기도 이어졌지만, 불쾌하기는커녕, 기분 좋은 약탈(?)을 당했다. 그만큼 '김상현' 씨의 언동(言動)엔 친화력이 있었다. 이후, 나는 이 신문사, 저 잡지사에 다니며 편집의 일을 했고, '김상현' 씨는 목적인 데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 2. 김상현 씨와 함께 일을 하다

'사진협회(대한프로사진가협회)' 편집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다. 국회의원이 된 '김상현' 의원이 급히,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4.19혁명 사진전'을 준비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부탁하는 전시(展示) 일자가 너무 촉박해 난감해 하자, '김상현' 의원은 '4.19 사진전이 왜 개최되어야 하는지', '전시일이 왜 그 날이어야 하는지' 등을 역설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날짜를 맞춰보라고 명령(?)조의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의 경우로는 무리한 일이라, 거절 할 일이었지만, '김상현' 의원의 그 유명한 설득력(說得力) 앞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간신문사 '사진기자단'에 연락해 4.19때 찍은 사진 필름을 거둬, 밤 세워 3.15부정 선거에서부터, '이승만' 박사의 하야(下野)와 장례식 까지를 드라마 식으로 엮어, 약속한 날짜에 세종문화회관(당시는 현, 광화문 정부청사 자리에 1층 건물로 있었다) 전시장에 전시했다.

전시회 오픈에는 '유진오' 박사님을 비롯해 '김대중'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계 인사 그리고 당시 내로라하는 시회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김상현' 의원의 마당발을 과시했다. 전시회는 일정을 두 번이나 연장할 정도로 대 성공을 거뒀다. 필자는 전시 계획은 물론, 전시작품의 배열, 심지어는 당시 조성(造成) 중이던 수유리 4.19묘지에 가서 4.19탑을 2중 촬영으로 찍은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와 리프레트도 멋지게 나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1인 5역(글, 편집, 사진, 도안, 인쇄 과정)을 하던 당시의 필자를 김상현 의원은 필요했는지, 옆에 와서(비서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제안해 왔다. 그래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절했다.

며칠 후, '김상현' 씨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 자리에는 '윤형두' 씨도 있었다. '김상현' 씨가 "월간 잡지를 창간할 테니, 맡아달라고 했다." (나중에 안 일인데, '윤형두' 씨의 아이디어였다. '박창근을 잡으려면, 잡지를 창간해서, 맡기면 될 것' 이라고 한 것이다.) 당시, 이 나라 최고의 지성지(知性誌)인 '사상계(思想界)'가 폐간된지 얼마 안 된 때라, 그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새로운 사상(思想)지의 출간이 필요한 때였다. 그래서 잡지를 창간해 맡는다는 조건으로, 다니던 '사진협회'에 사표를 내고, '김상현' 의원의 캠프(광화문 당주동 소재 '단국학술연구원')에 합류해 잡지 창간을 준비했다.

잡지의 제호(題號)는 당시 '조선일보'에 있던 '이어령' 씨가 잡지의 편집위원이어서 편집회의에서 '너와 나의 다리'라는 제호를 제시했지만, 너무 길다는 다른 편집위원의 의견에 따라, '너와 나의'를 빼고, '월간 다리'가 되었다. 필자가 편집장을 맡고, '윤형두' 씨가 주간(主幹) 그리고 '김상현' 의원의 고교(高校) 동창인 '윤재식' 씨가 발행인이 되어, 문제의 잡지 '월간 다리'지가 세상에 나왔다.

이 모든 과정(4.19사진전을 위한 만남으로부터)이 불과 6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이것이 저 유명한 '김상현' 의원의 과감한 추진력이다. <계속>